

韓國人の 四象人 分布에 관한 研究

이태규 · 황민우 · 함통일 · 이수경 · 최봉근* · 고병희 · 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e Distribtional Rate of Sasangin in Korea

Lee Tae-Gyu, Hwang Min-Woo, Ham Tong-Il, Lee Soo-Kyung, Choe Bong-Keun*, Koh Byung-Hee,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

1. Objectives

Though the distribtional rate of Sasangin was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there were few studies on the distribtional rate of Sasangin in Korea. S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distribtional rate of Sasangin in Korea.

2.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1,423 subjects who have taken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from January 2003 to June 2003 at a health examination center of a hospital in Seoul were reviewed. Then distribtional rate of Sasang constitution were analyzed and age ·sex-adjusted standardized distribtional rate were estimated by direct standardization using a reference population of 2000 aged from 20 to 70 years.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1,423(Males : 704(49.5%) / Females : 719(50.5%)). And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46.3±11.4 years(males : 45.4 ±11.3 / females 47.1 ±11.4).
- (2) Among the 1,423 subjects, distribtional rate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were 46.9%, 29.1% and 24.0%(Male : Taeumin 48.2%, Soyangin 37.9%, Soeumin 13.9% / Female : Taeumin 45.6%, Soyangin 20.4%, Soeumin 33.9%).
- (3) Age · sex-adjusted standardized distribtional rate of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were 45.4%, 28.2% and 26.4%(Male : Taeumin 50.8%, Soyangin 35.1%, Soeumin 14.1% / Female : Taeumin 39.5%, Soyangin 21.0%, Soeumin 39.4%).
- (4) The rate of Soeumins was higher than that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and the distribtional rate of Sasangin according to sex was different.
- (5) So it was thought that the distribtional rate of Sasangin in Korea was different from that mentioned in 『Dongyi Suse Bowon』.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sasangin, distribution, direct standardization

I. 緒 論

東武 李濟馬(1837~1900, 이하 '東武公'으로 약칭)는 『東醫壽世保元』¹⁾을 저술하여 사람을 臟腑大

少에 따라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각 體質의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인 特性과 生理, 病理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四象人辨證論』에서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라고 하여 四象人의 分包에 관해 개략적인 언급을 하였다.

• 접수일 2005년 10월 10일; 송일병 2005년 12월 2일

• 교신저자 : 송일병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lbsong@khmc.or.kr

Table 1. Mean Age of Study Subjects

Sex	Constitution, mean \pm S.D.(yr)				F-value*
	Taeumin	Soyangin	Soeumin	Total	
Male	44.1 \pm 11.1 ^a	47.2 \pm 11.0 ^f	45.1 \pm 12.0	45.4 \pm 12.3	5.95**
Female	49.6 \pm 10.6 ^b	46.3 \pm 11.5 ^e	44.3 \pm 11.7 ^{bc}	47.1 \pm 11.4	16.48**
Total	46.8 \pm 11.2 ^b	46.9 \pm 11.2 ^e	44.5 \pm 11.8 ^{bc}	46.3 \pm 11.4	5.36**

*p values are calculated by one-way ANOVA test

**p<0.01

^a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test

^b Taeumin group and Soeumin group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test

^c Soyangin group and Soeumin group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test

그 후 한의학계에서는 이러한 東武公의 언급만을 근거로 四象人의 분포를 설명하거나 한의사 개인의 임상 경험을 근거로 四象人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90 년대에 들어서 四象醫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2,27} 연구대상자들의 체질분포를 통해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간접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四象人의 분포를 알아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 표본의 선정 방법, 체질 진단의 방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연구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결과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3년에 이르러 金 등²⁸이 일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1,3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四象人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초로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의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며,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에 대한 추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金 등²⁸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건강인을 대상으로 四象人의 분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표준화법을 사용하여 韓國人의 四象人 분포를 처음으로 추정함으로써 향후 四象醫學에 관련된 다양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경희의료원 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내원하여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紙 II(Revised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이하 QSCC II+)²⁹로 설문 검사한 2172명 중에서 四象體質專攻 專門醫가 體質診斷한 2080명과 비교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20세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1,423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研究方法

1,423명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흡연력, 음주력, 운동상태 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사상체질 진단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교육수준, 흡연력, 음주력, 운동 상태 등은 건강검진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3. 資料分析

성별에 따른 연령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체질에 따른 연령의 비교는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다. 四象體質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의성 분석은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정을 시행하였는데, 교차분석표에서 빈도수가 5 이하로 되는 칸이 있을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각각의 경우에서 결측치는 제외하고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p value가 0.05 이하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四象人의 분포에 관하여는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한

국민의 사상인의 분포는 2000년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를 표준인구로 한³⁰ 직접표준화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11.5 for Windows 를 사용하였다

III. 研究結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전체 1,423명, 남자 704명(49.5%), 여자 719명(50.5%)으로서 연구대상자들의 남녀 비는 비슷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46.3±11.4세였으며, 남자 평균 연령이 45.4±11.3세로 여자 평균 연령 47.1±11.4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4, t=-2.905).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평균 연령은 太陰人 46.8±11.2세, 少陽人 46.9±11.2세, 少陰人 44.5±11.8세로 少陰人의 평균연령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5), 성별을 구분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평균연령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자의 경우 少陽人의 평균 연령이 47.2±11.0세로 太陰人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03), 여자의 경우 少陰人

이 44.3±11.7세로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Table 1).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교육기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성별을 구분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교육기간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少陽人 남자의 경우 다른 체질의 남자에 비해 7년 이상 12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60.3%(141명)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3), 少陰人 여자의 경우 다른 체질의 여자에 비해 13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38.5%(80명)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흡연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p<0.001), 성별을 구분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흡연력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자의 경우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少陰人 남자의 경우 다른 체질의 남자에 비해 비흡연자의 비율이 41.2%(40명)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27), 少陽人 여자의 경우 현재 흡연자의 비율의 12.2%(17명)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38).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음주력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Total		
	Sasang Constitution, No(%)			Sasang Constitution, No(%)			Sasang Constitution, No(%)		
	Taeumin	Soyangin	Soeumin	Taeumin	Soyangin	Soeumin	Taeumin	Soyangin	Soeumin
Education(yr)			χ ² value*			χ ² value*			χ ² value*
			16.148 [†]			39.083 [†]			21.251 [†]
≤6	17(5.6)	15(6.4)	6(6.4)	89(29.7)	27(19.7)	41(19.7)	100(17.1)	42(11.3)	47(15.6)
7~12	135(44.1)	141(60.3)	45(47.9)	153(54.8)	81(59.1)	87(41.8)	288(49.2)	222(59.8)	132(43.7)
≥13	154(50.3)	78(33.3)	43(45.7)	45(15.4)	29(21.2)	80(38.5)	197(33.7)	107(28.8)	123(40.7)
Total	303(100.0)	234(100.0)	94(100.0)	279(100.0)	137(100.0)	208(100.0)	585(100.0)	371(100.0)	302(100.0)
Smoking history			10.960*			6.668			82.257 [†]
Never	95(28.3)	63(24.0)	40(41.2)	29(9.2)	119(85.6)	22(9.2)	38(5.3)	182(45.4)	263(78.0)
Ex-Smoker	54(16.1)	51(19.5)	13(13.4)	4(1.3)	3(2.2)	2(0.8)	5(8.9)	54(13.5)	15(4.5)
Current Smoker	187(53.7)	148(56.5)	44(45.4)	20(6.3)	17(12.2)	15(6.3)	207(31.8)	165(41.1)	59(17.5)
Total	336(100.0)	262(100.0)	97(100.0)	315(100.0)	139(100.0)	240(100.0)	651(100.0)	401(100.0)	337(100.0)
Drink history			3.161			4.488			42.301 [†]
Never & Quir	62(18.3)	47(17.9)	25(25.8)	188(59.5)	75(54.0)	135(64.9)	250(38.2)	122(30.3)	180(53.6)
Current Drinker	27(8.1)	21(8.2)	7(7.2)	12(4.0)	64(46.0)	84(35.1)	404(61.8)	280(69.7)	156(46.4)
Total	338(100.0)	263(100.0)	97(100.0)	316(100.0)	139(100.0)	239(100.0)	654(100.0)	402(100.0)	336(100.0)
Exercise			4.809			2.564			11.324 [†]
No	157(53.2)	98(45.8)	47(58.8)	144(60.5)	62(54.4)	129(63.5)	301(56.5)	160(48.8)	176(62.2)
Yes	138(46.8)	116(54.2)	33(41.3)	94(39.5)	52(45.6)	74(36.5)	232(43.5)	168(51.2)	107(37.8)
Total	295(100.0)	214(100.0)	80(100.0)	238(100.0)	114(100.0)	203(100.0)	533(100.0)	328(100.0)	283(100.0)

* calculated by chi square test

**p<0.05, †p<0.01

Table 3. Distribution of Sasangin

Age(yr)	Male			Female			Total		
	Sasang Constitution, No(%)			Sasang Constitution, No(%)			Sasang Constitution, No(%)		
	Taemin	Soyangin	Soeumin	Taemin	Soyangin	Soeumin	Taemin	Soyangin	Soeumin
20-29	33(4.7)	15(2.1)	9(1.3)	13(1.8)	12(1.7)	30(4.2)	46(3.2)	27(1.9)	39(2.7)
30-39	85(12.1)	57(8.1)	20(2.8)	47(6.5)	28(3.9)	56(7.8)	132(9.3)	85(6.0)	76(5.3)
40-49	117(16.6)	84(11.9)	30(4.3)	93(12.9)	47(6.5)	66(9.2)	210(14.8)	131(9.2)	96(6.7)
50-59	66(9.4)	58(8.2)	27(3.8)	109(15.2)	39(5.4)	65(9.0)	175(12.3)	97(6.8)	92(6.5)
60-69	38(5.4)	53(7.5)	12(1.7)	66(9.2)	21(2.9)	27(3.8)	104(7.3)	74(5.2)	39(2.7)
Total	339(48.2)	267(37.9)	98(13.9)	328(45.6)	147(20.4)	244(33.9)	667(46.9)	414(29.1)	342(24.0)
ASR*	(50.8)	(35.1)	(14.1)	(39.5)	(21.0)	(39.4)	(45.4)	(28.2)	(26.4)

* Age · sex-adjusted standardization rate(Standard population was Korean population at 2000)

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少陰人의 경우 다른 체질에 비해 현재 음주자의 비율이 74.2%(72명)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p<0.001), 성별을 구분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음주력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206, p=0.106).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운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少陽人의 경우 다른 체질에 비해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51.2%(168명)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03), 성별을 구분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운동 여부를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90, p=0.277) (Table 2).

2. 四象人의 분포

1) 연구대상자들의 四象人 분포

본 연구에서 太陽人은 四象體質專攻 專門醫에 의해 3명이 진단되었지만 QSCC II+ 로는 太陽人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3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들 3명을 제외한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체질분포를 분석한 결과, 太陰人 46.9%(667명), 少陽人 29.1%(414명), 少陰人 24.0%(342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을 구분하여 체질분포를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자의 경우 太陰人 48.2%(339명), 少陽人 37.9%(267명), 少陰人 13.9%(98명)로 전체 평균보다 少陽人의 비율이 높고 少陰人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太陰人 45.6%(328명), 少陽人 20.4%(147명), 少陰人 33.9%(244명)로 전체 평균보다 少陰人의 비율이 높고 少陽人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χ^2 value=97.144).

2) 추정된 한국인의 四象人 분포

2000년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를 표준인구로 하여 직접표준화한 결과, 전체적으로 太陰人 45.4%, 少陽人 28.2%, 少陰人 26.4%로 추정되었는데, 남자의 경우 太陰人 50.8%, 少陽人 35.1%, 少陰人 14.1%로 少陽人의 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고, 여자의 경우 太陰人 39.5%, 少陽人 21.0%, 少陰人 39.4%로 少陰人의 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Table 3).

IV. 考 察

『東醫壽世保元·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는 東武公이 39세(乙亥年)에 六味地黃湯으로 少陽人을 치료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는 乙亥年 清明 시기였다...이 때에 경험이 부족하여 단지 少陽人의 약을 씌어 六味湯이 최고로 좋은 줄만 알아서...”¹⁾라고 함으로써 그가 최소한 39세 이전부터 四象人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東武公은 그 이후 四象人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

1) 『東醫壽世保元·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嘗治 少陽人 傷寒發狂譫語證 時則乙亥年 清明節候也. 少陽人 一人 得傷寒 寒多熱少之病 四五日後 午未辰刻 喘促短氣 伊時 經驗未熟 但知少陽人應用藥 六味湯 最好之理故 不敢用他藥 而紙用六味湯一貼 病人喘促 即時頓定”

Table 4. Distribution of Sasangin in Literatures written by Lee Je-ma

Literature	Region	Sasang Constitution, No(%)			
		Taumin	Soyangin	Soeumin	Taeyangin
『DongyiSooseBowon Sasang Chobongyun』		5000(50)	3000(30)	2000(20)	4~5(0.04~0.05)
『DongyiSooseBowon Gabobon』	North Region	3000(30)	5000(50)	2000(20)	3~10(0.03~0.10)
	South Region	4000(40)	4000(40)	2000(20)	3~10(0.03~0.10)
『DongyiSooseBowon Sinchukbon』		5000(50)	3000(30)	2000(20)	3~10(0.03~0.10)

되고 임상경험이 축적되면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³¹ 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³²에서 “1만명 중에서 太陰인이 5천명, 少陽인이 3천명, 少陰인이 2천명, 太陽인이 4~5명 정도”³⁾라고 하여 처음으로 四象人의 분포에 언급을 하였으며, 57~58세에 저술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³³에서 “北道山谷에서는 1만명 중에서 少陽인이 5천명, 太陰인이 3천명, 少陰인이 2천명, 太陽인이 10여명이고, 南中原野에서는 1만명 중에서 少陽인과 太陰인이 각각 4천명, 少陰인이 2천명, 太陽인이 10여명”³⁾이라고 하여 北道山谷과 南中原野로 지역을 구분하여 四象人의 분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64세에 改抄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는 “1만명 중에서 太陰인이 5천명, 少陽인이 3천명, 少陰인이 2천명, 太陽인이 4~5명 내지 10여명 정도”⁴⁾라고 하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보다도 오히려 간략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과 유사한 비율로 四象人의 분포를 다시 제시하였다(Table 4).

한의학계에서는 東武公의 가장 마지막 저작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언급을 가장 신뢰할만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四象人의 분포를 太陰人 50%, 少陽人 30%, 少陰人 20%, 太陽人 0.1% 내외로 설명해 왔었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太少陰陽稟賦之人 以今時一縣萬人數斟酌之則 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不過四五人已”
- 3)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以今時目見 北道山谷一縣萬人數大略論之則 少陽人五千人也 太陰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 以南中原野一縣萬人數大略論之則 少陽太陰人各四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亦絕少一縣中或三四人十餘人而已”
- 4) 『東醫壽世保元 辛丑本·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東武公이 四象人의 분포를 언급했던 당시의 인구구조가 현재의 인구구조와 확연하게 다르며, 지난 1세기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분단, 한국 전쟁, 산업화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문헌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東武公의 언급이 일치하지 않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四象人辨證論』에 제시된 언급에 대해 韓 등³⁴은 四象人의 分布와 관련된 첫 번째 條文이 만약 甲午本의 條文이라고 하면 그 뒤에 辛丑本의 두 번째 條文을 기술하고 條文 引用表示를 했어야 하였으나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加筆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條文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저술한 이후에 東武公의 의학경험이 축적되면서 더욱 발전된 의문이 담겨있는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을 저술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언급된 분포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언급된 분포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문장에 사용된 어휘를 볼 때에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을 보고 加筆하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抄錄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역으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조문 내용 중에서 일부가 누락되어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東武公이 四象人의 분포를 언급한 것은 통계적으로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後學들이 그 대략적인 비율을 참고하여 四象人 辨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四象人의 분포가 언급되어 있는 앞의 세 문헌들의

Table 5. Distribution of Sasangin in Previous Studies*

First Author	Sample size (Male/Female)	Sasang Constitution, No(%)				Subject	Methods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aeyangin	Soyangin	Soeumin	Taeyangin		
Lee(1990) ²	673(315/358)	166(24.7)	49(7.3)	457(67.9)	0(0.0)	Students	OMD
Lee(1995) ¹⁰	328(189/139)	128(39.0)	100(30.5)	100(30.5)	0(0.0)	OPD Pt.	SCM specialist, QSCC(I)
Lee(1996) ²²	196(107/86)	110(56.1)	58(29.6)	28(14.3)	0(0.0)	healthy persons	Questionnaire(I), QSCC(I), TH030, SCM specialist
Koh(1996) ³	170(105/65)	75(44.1)	56(32.9)	39(22.9)	0(0.0)	OPD Pt. & healthy persons	SCM specialist, QSCC(I), Reaction of Tx.
Cha(1996) ¹¹	603(335/266)	321(53.2)	99(16.4)	182(30.2)	1(0.2)	healthy persons	Questionnaire(I), QSCC(I), SCM specialist
Cho(1997) ⁵	741(406/335)	374(50.5)	154(20.8)	213(28.7)	0(0.0)	healthy persons	SCM specialist, OMD
Kim(1998) ¹²	100(100/0)	25(25)	26(26)	49(49.0)	0(0.0)	Students	QSCC(II), SCM specialist
Park(1998) ⁷	208(142/66)	76(36.5)	51(24.5)	81(38.9)	0(0.0)	Not reported	Questionnaire(I), QSCC(II)
Hong(1998) ¹	113(49/64)	44(38.9)	38(33.6)	31(27.4)	0(0.0)	OPD Pt. & healthy persons	SCM specialist, QSCC(I)
Lee(1998) ⁶	338(134/204)	157(46.4)	98(29.0)	83(24.6)	0(0.0)	healthy persons	QSCC(II), SCM specialist
Hong(1998) ⁸	209(100/109)	68(32.5)	69(33.3)	72(34.4)	0(0.0)	OPD Pt. & healthy persons	Questionnaire, SCM specialist
Park(1999) ¹⁵	1,595(967/628)	553(34.8)	485(30.5)	551(34.7)	0(0.0)	Students & healthy persons	QSCC(II)
Kim(1999) ³⁰	196(100/96)	97(49.5)	32(16.3)	67(34.2)	0(0.0)	OPD Pt.	Questionnaire(I), QSCC(II), SCM specialist
Park(1999) ⁴	148(103/45)	55(37.2)	48(32.4)	45(30.4)	0(0.0)	Students & healthy persons	Questionnaire(I), QSCC(II) SCM specialist
Lee(2000) ²³	280(109/171)	58(20.7)	35(12.5)	187(66.8)	0(0.0)	healthy persons	OMD
Park(2000) ¹⁶	200(145/55)	77(38.5)	53(26.5)	70(35.0)	0(0.0)	Students & Pt.	SCM specialist
Sung(2001) ²⁴	368(103/265)	143(38.9)	200(54.3)	205.4)	0(0.0)	OPD Pt.	OMD, Reaction of Tx.
Park(2002) ⁹	215(110/105)	97(45.1)	90(41.9)	28(13.0)	0(0.0)	OPD Pt.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Choi(2002) ²⁶	504(214/290)	148(29.4)	125(24.8)	223(44.2)	0(0.0)	OPD Pt.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Lee(2002) ²¹	584(300/284)	268(45.9)	100(17.1)	216(37)	0(0.0)	OPD Pt.	Questionnaire(I), QSCC(II),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Kim(2003) ¹⁸	1,335(786/549)	639(47.8)	391(29.2)	305(22.8)	0(0.0)	OPD Pt.	OMD, Reaction of Tx.
Kim(2003) ²⁸	1,336(787/549)	640(47.8)	391(29.2)	305(22.8)	0(0.0)	OPD Pt.	OMD, Reaction of Tx.
Kim(2003) ¹⁷	1,051(488/558)	389(37.0)	254(24.2)	374(35.6)	34(3.2)	OPD Pt.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Choi(2003) ²⁵	610(258/352)	182(29.8)	137(22.5)	279(45.7)	12(2.0)	OPD Pt.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Park(2003) ³	331(135/196)	103(31.1)	90(27.2)	131(39.6)	7(2.1)	OPD Pt.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Shin(2004) ³⁹	199(92/107)	105(52.8)	50(25.1)	44(22.1)	0(0.0)	OPD Pt. & IPD Pt.	SCM specialist
Beck(2004) ²⁹	588(248/340)	175(29.8)	267(45.4)	10(1.7)	0(0.0)	OPD Pt.	SCM specialist, Reaction of Tx.

* Subjects of these studies were over 100 cases and studies for special diseases were excluded.

† Subjects of these studies were over 1,000 cases

Abbreviation : OMD, oriental medical doctor; OPD, out-patient department; SCM,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QSCC,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Pt. , Patient ; Tx, Treatment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四象人의 분포를 언급한 다음에 四象人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象人의 분포를 제시한 부분이 「四象人辨證論」의 첫 부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언급만을 근거로 四象人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헌에 근거한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언급 외에, 1990 년대에 들어서 四象醫學과 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연구대상자들의 체질분포를 통해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간접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四象人의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2,8}, 진단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⁹⁻¹⁹, 임상 검사 소견 및 질병 양상 등에 관한 연구²⁰⁻²⁷ 등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임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원래 四象人의 분포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 표본의 선정 방

법, 체질 진단의 방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연구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결과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었다(Table 5). 따라서, 이들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四象人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도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四象人의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었는데, 2003년에 이르러 金 등²⁸이 일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1,3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四象人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⁵⁾ 처음으로 四象人의 분포에 관한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Table 5). 金 등²⁸의 연구에 의하면 太陰人 47.8%, 少陽人 29.2%, 少陰人 22.8%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太陰人 55.3%, 少陽人 27.1%, 少陰人 17.5%로 太陰人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여자는 太陰人 42.6%, 少陽人 30.7%, 少陰人 26.5%로 少陰人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고 하였다($p < 0.001$). 그러나, 金 등²⁸의 연구도 연구대상이 '일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며,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에 대한 추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金 등²⁸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건강인을 대상으로 四象人의 분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표준화법을 사용하여 韓國人의 四象人 분포를 추정하는 것을 최초로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체질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太陰人 46.9%, 少陽人 29.1%, 少陰人 24.0%로 나타나 金 등²⁸이 제시한 太陰人 47.8%, 少陽人 29.2%, 少陰人 22.8%라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언급된 太陰人 50%, 少陽人 30%, 少陰人 20%라는 비율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언급된 비율보다는 少陰人 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직접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최초로 한국인의 四象人의 분포를 추정하여 보

았는데, 2000년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를 표준인구로 하여 직접표준화한 결과, 太陰人 45.4%, 少陽人 28.2%, 少陰人 26.4%로 추정되어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언급된 四象人의 분포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원자료와 마찬가지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언급된 비율보다는 少陰人 이 약간 높은 비율로 추정되었다.

한편,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지역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성별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도 太陰人 50%, 少陽人 30%, 少陰人 20%, 太陽人 0.03-0.10%라는 비율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체질분포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남자의 경우 太陰人 48.2%(339명), 少陽人 37.9%(267명), 少陰人 13.9%(98명)로 전체 평균보다 少陽人의 비율이 높고 少陰人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太陰人 45.6%(328명), 少陽人 20.4%(147명), 少陰人 33.9%(244명)로 전체 평균보다 少陰人의 비율이 높고 少陽人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金 등²⁸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남자는 太陰人 55.3%, 少陽人 27.1%, 少陰人 17.5%로 太陰人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여자는 太陰人 42.6%, 少陽人 30.7%, 少陰人 26.5%로 少陰人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두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과 체질진단의 기준 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와 金 등²⁸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남자의 경우 少陰人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자의 경우 少陰人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제로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의 심리적인 특성이 少陰人의 “恒欲處而不欲出”하는 性氣와 “恒欲爲雌 而不欲爲雄”하는 情氣⁶⁾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체질 진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5) 金 등²⁸의 연구는 金 등³⁴의 연구와 표본 집단이 거의 동일하였다.

볼 수도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중에서 少陰 여자의 평균연령이 다른 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다 진전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직접표준화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에도 남자의 경우 太陰人 50.8%, 少陽人 35.1%, 少陰人 14.1%로 少陽人의 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고 少陰人의 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었고, 여자의 경우 太陰人 39.5%, 少陽人 21.0%, 少陰人 39.4%로 少陰人의 비율이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고 少陽人과 太陰人의 비율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Table 3). 즉 추정된 四象人의 분포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건강인을 대상으로 四象人의 분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최초로 韓國人의 四象人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문헌에 언급되었던 四象人의 분포를 임상적으로 확인하였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향후 四象醫學에 관련된 다양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연구 자료의 대표성 결여 및 선택 편견(Selection bias)의 문제점이 있었다. 즉, 전국 소재의 건강 검진 센터를 조사하지 않고 서울 소재 한 의료기관의 건강 진단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보편적 남녀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體質診斷의 타당도에 문제점이 있었다.

QSCC II+에 의한 診斷 및 四象體質專攻 專門醫의 臨床的 檢診을 통하여 體質을 진단하며, 두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QSCC II+로는 太陽人을 진단할 수 없으며, QSCC II+의 體質診斷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해 아직 연구된 바가 없고, 四象體質專攻 專門醫의 體質診斷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으며, QSCC II+의 결과와 四象體質專攻 專門醫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만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비교적 전형적인 體質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리고, 金 등²⁸의 연구처럼 치료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에 관해 보다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경희의료원 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QSCC II+와 四象體質專攻 專門醫에 의해 體質診斷을 받은 1,42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四象人의 분포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은 전체 1,423명, 남자 704명(49.5%), 여자 719명(50.5%)으로서 연구대상자들의 남녀 비는 비슷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46.3±11.4세였으며 남자 평균 연령이 45.4±11.3세로 여자 평균 연령 47.1±11.4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 연구대상자들의 체질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太陰人 46.9%(667명), 少陽人 29.1%(414명), 少陰人 24.0%(342명)이었는데, 남자의 경우 太陰人 48.2%(339명), 少陽人 37.9%(267명), 少陰人 13.9%(98명)이었고, 여자의 경우 太陰人 45.6%(328명), 少陽人 20.4%(147명), 少陰人 33.9%(244명)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四象人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3. 2000년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를 표준인구로 하여 직접표준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四象人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太陰人 45.4%, 少陽人 28.2%, 少陰人 26.4%로 추정되었고, 남자의

6)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경우 太陰人 50.8%, 少陽人 35.1%, 少陰人 14.1%로 추정되었으며, 여자의 경우 太陰人 39.5%, 少陽人 21.0%, 少陰人 39.4%로 추정되었다

4.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되었던 분포와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사상인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5. 東武公이 언급했던 四象人의 분포비율을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자료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四象人 辨證에 도움을 주고자 제시한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한의학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분석된 자료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四象人의 분포비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이문호, 홍순용. 사상체질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 태지수와의 비교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0;2(1):71-86.
3. 고병희, 송일병, 조웅진, 최창석, 홍석철, 이의주, 이상룡, 김종원, 서정숙.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01-186.
4. 박성식, 최재영, 정민석, 김이석, 이제만, 이경애, 조규선, 이지영, 박은경. 사상체질 유형과 지문·손바닥문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81-100.
5. 홍석철, 이수경, 송일병.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161-180.
6.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四象人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181-220.
7. 홍석철, 고병희, 송일병. 四象人 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징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221-270.
8. 박은경, 박성식. 四象人 수족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95-208.
9. 조황성, 지상은,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권건혁, 남봉현, 조동욱.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147-162.
10. 이의주.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1)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89-100.
11. 차철주, 이상룡, 이의주, 홍석철, 김종원, 고병희, 송일병. EAV 측정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성별·연령별·체질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131-150.
12. 김달래, 박성식, 권기록. 성분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65-80.
13.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03-118.
14. 박은경, 박성식.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57-172.
15. 박혜선, 주종천, 김주한, 김경요.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 II)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35-44.
16. 김종열, 김흥기.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항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24-138.
17.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정성일, 이영욱, 조훈석, 김종원. 사상체질진단기준(외모 심성 병증)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10.
18. 박성식, 최재영.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설문지의 응답특성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77-186.
19. 신동윤, 송정모. 사상체질설문지 문항의 해석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74-99.
20. 김영우, 김종원.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II(문진표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19-136.
21. 이영욱, 김종원. 사상체질에 따른 질병 및 증상 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II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74-84.

22. 이수경,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四象人의 특징에 대한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349-376.
23. 이용구, 설인찬. 사상체질과 임상검사 결과와의 상관관계.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0;8(2):383-397.
24. 성진혁. 한국MBTI 연구소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유형의 설문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56-164.
25.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58-68.
26. 최정락,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수면의 특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204-215.
27.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2-119.
28. 김종열, 김흥기. 익산원광한의원 내원환자의 체질분포에 관한 통계적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2003;24(3):118-129.
29. 김상복, 이준희, 박계수, 정용재, 이수경, 송일병.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 II에 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15-22.
30. 2000년 인구총조사자료 통계청 2001
31.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63-78.
3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서울, 2000.
3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서울, 2001.
34.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94-109.

